2019.11.5 화요일

이건 딱히 실패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나의 마인드셋을 다지기 위해서 글을 쓴다. 아주 기본적인 문자열 알고리즘을 풀다가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잘 집중도 안 되면서 카톡을 계속 켜고 친구들과 쓸데없이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알고리즘을 풀어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집중력을 잃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너무 조급함에 압도되어 정신력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흔들려 공부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보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그리고 내가 알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실패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 당연히 성공보다 가까이 있다. 이 길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공부를 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괜한 오기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몇 시간씩을 낭비하고 있다. 겸손하게 인정하자. 나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었으며 그 기간도 온전히 이 공부에 몰입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런 쪽으로 머리가 좋은 것도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운다 라는 마인드셋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고민해서 풀리지 않으면 4시간씩 붙잡고 있을게 아니라 남의 코드를 보고 공부를 하자. 너무 쉽게 좌절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좌절할 일은 산처럼 쌓여있는데 벌써부터 좌절하면 정신이 온전히 버티질 못할 것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역동적인 사람들, 혁신하는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낭만이 있는 사람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내가 되고 싶은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이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내 주변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직접 사귀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접촉해야 한다. 오늘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다. 내가 부끄러웠다. 이 감정은, 이 자극은 나를 성장시키기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처럼 성장하는 개발자에 관한 책과 글들을 멈추지말고 끊임없이 읽고 접촉할 것이다. 마치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내가 성장한다. 내가 그들처럼 될 수 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배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내가 좌절하는 이유는 오늘도 도전했기 때문이다. 이게 내 좌절에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https://jojoldu.tistory.com/247> 오늘 내가 읽은 글. 김종립 씨가 31살에 국비지원학원으로 시작하여 SI업계를 거쳐 우아한형제들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야기.